

김광섭 시에 나타난 공동체 인식 연구

손민달*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상상의 공동체 - 부정적 현실인식
- III. 존재론적 공동체 - 타자에 대한 책임
- IV. 생명공동체 - 생명지향의 미래와 한계
- V. 결론

【국문초록】

김광섭의 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후기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그의 시세계 전반의 변화를 삶의 궤적과 대응시켜 해석하려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김광섭의 시에 나타난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그의 시적 변모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초기시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관념성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그의 인식 변화는 ‘나라’를 인식하는 ‘상상의 공동체’와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존재론적 공동체’, 유기체적이고 전일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동체’로 구분된다.

그의 첫시집 『동경』에는 앤더슨이 제시한 ‘상상의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는 ‘민족’의 대응어인 ‘나라’가 다수 등장한다. 김광섭은 ‘나라’를 매개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긍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한다. 그의 초기시를 표면적인 관념성과 고독과 허무로 평가하는 것은 이로써 보완할 수 있다.

김광섭의 중기시에는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성 자체에 주목하는 존재론적 공동체를 보여준다. 특히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현전, 자아의 타자에 대한 ‘책임’과 ‘대속’을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시의 중요한 표지로 삼아 시작활동을 하였다. 이는 그가 자아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존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성북동 비둘기』를 포함한 후기시는 생명공동체적 인식을 보이면서 자아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킨다. 특히 그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온생명’을 시화하고 유기체적이고 전일적인 생명공동체를 구상한다. 그러나 요나스가 제시한 생태학적 책임 윤리의 측면에서 그의 시는 일정부분 한계를 보인다.

주제어 : 김광섭, 공동체, 상상의 공동체, 민족, 존재론, 레비나스, 책임, 생명, 온생명

I. 서론

이산 김광섭은 1948년 『백민』에 발표된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에서 “나는 문학은 시대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산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것이 유구한 역사의 뿌리에서 단절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문학의 시대성 현실성을 민족의 역사적 본념과 그 음성을 기조로 하여 국토의 피로서 육성되는 것”¹⁾이라 했다. 김광섭은 이 글에서 문학이 당대의 모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함과 동시에 ‘민족의 역사적 본념’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광섭이 말한 ‘민족’을 ‘민족’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용어상의 문제²⁾를 차지하고, 거칠게 문화적·혈연적 공동체로 본다하더라도 그의 문학 해명에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한편으로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동체

1) 김광섭, 홍정선 편,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 『이산 김광섭 산문집』, 문학과지성사, 2005, p.568.

2)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96호, 역사비평사, 2011, pp.169-201.

를 해체시켜온 역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잃어버린 공동체를 끊임 없이 회구해온 역사³⁾이기 때문이다.

김광섭은 1935년 『시원』에 『고독』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하였다. 그는 40여 년 동안 시작활동을 펼치면서 5권의 시집과 전집·선집 각 1권씩을 발간하였다.⁴⁾ 그는 일제강점기 3년 8개월 동안 투옥된 경력⁵⁾으로 해방 이후 우익문단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해방 후 임화 중심의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확대될 때 그는 ‘중앙문화협회’와 ‘전조선문필가협회’를 창설하였고, 1954년 ‘한국자유문학자협회’의 위원이 되면서 한국문단을 만들고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⁶⁾ 문단 외적으로도 김광섭은 이승만 정권의 초대 공보비서관으로 발탁되어 1951년까지 활동하였고, 이후 경희대학교 교수에 임용되었으며, 1958년 세계일보 사장이 취임하는 등 1965년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김광섭의 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초기시⁷⁾의 관념성과 낭만성을 중심

3) 최병두, 『도시 공동체 운동의 실태와 전망』, 『환경과 생명』24호, 환경과 생명, 2000, p.91.

4) 『동경』(1938), 『마음』(1949), 『해바라기』(1957), 『성북동 비둘기』(1969), 『반응』(1971), 『김광섭시전집』(1974), 『김광섭시선집-겨울날』(1975).

5) 모교인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이유로 1941년 2월에 체포되어 해방되기 9개월 전에 출옥하였다. 홍정선, 『김광섭, 시인이란 기억 뒤의 문단건설자』, 『한국사 시민강좌』43집, 일조각, 2008, p.337.

6) 같은 책, pp.336-347.

7) 염무웅에 의해 제시되어 이후 연구자들에게 보편화된 김광섭의 시세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초기(1935~1945)-고단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당대의 현실을 우울하고 관념적인 언어 속에 담았다. 일제 말엽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죄목으로 3년 8개월 동안 옥중생활을 하기도 했다.

② 중기(1945~1965)-왕성한 사회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기간이다. 시적으로는 전기의 우울한 색조 대신에 애국시 비슷한 힘차고 명량한 가락이 자리잡았으나,

으로 한 연구⁸⁾와 중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 생명·생태적 관점의 연구⁹⁾로 대별되며,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시적 변모 양상과 시 전반을 살핀 연구¹⁰⁾ 등으로 나누어진다. 김광섭은 “식민지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족적인 염원과 결의를 훌륭하게 표명”¹¹⁾하고 있는 시인이면서도 초기시의 관념적인 표현으로 구성성과 개성이 없고 시적 공감을 얻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한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애매하고 관념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③ 후기(1965~1977)-고혈압으로 쓰러진 이후 작고하기까지의 기간이다. 그의 육신은 괴롭고 긴 병상의 나날을 보내야 했고 모친과 아내를 사별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지만, 문학적으로는 이산 특유의 넓고 높은 시세계를 창조해낸 빛나는 기간이다. 염무웅, 『김광섭소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pp.178-179.

8) 정태용, 『현대시인연구14: 김광섭론』, 『현대문학』, 현대문학, 1967, pp.264-273.

김현승,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69년 봄, pp.130-140.

염무웅, 앞의 책.

김윤식,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광섭론』,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74.

박호영, 『김광섭 초기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환상과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지』132, 한국어교육학회, 2010, pp.227-248.

9) 손재현, 『에코페미니즘과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연구』, 『문예미학』10권, 문예시학사, 1999, pp.183-191.

장정렬, 『문명의 위기와 생태주의적 상상력: 김광섭, 최승호 시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24,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2000, pp.101-122.

장은영, 『김광섭 시에 나타난 생명중심적 시의식 연구』, 『고향논집』32집, 경희대, 2003, pp.51-72.

송기환, 『김광섭 시의 자연과 그 근대적 의미 연구』, 『한중인문학연구』29집, 한중인문학회, 2010, pp.179-200.

송명희, 『김광섭 후기 시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와 생태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32호, 한국시학회, 2011, pp.61-86.

김해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명성 연구: 김광섭·성찬경·김광규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 김재홍, 『이산 김광섭』,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손종호, 『김광섭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안혜경, 『김광섭시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정은경, 『이산 김광섭 시 연구』, 『어문논집』39, 민족어문학회, 1999, pp.371-402.

11) 조태일, 『시인의 삶과 문학』,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77년 가을호, pp.234-247.

시인¹²⁾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또한 그의 대표작인 『성북동 비둘기』는 “비대화하는 도시 문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은 한 마리 비둘기를 통해 현대 문명의 비정성과 무력한 소시민의 운명을 암시하는 포괄적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¹³⁾는 상찬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의 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러한 큰 편차는 홍정선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시인들이 활동 초기에 가장 뛰어난 작품을 남기는 우리 문단의 일반적 관례와는 달리 만년에 인생에 대한 달관과 원숙미를 과시하며 훨씬 훌륭한 작품을 썼기 때문”¹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시인의 시적 변모를 그가 살아온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추출하는 것은 시가 가진 입체적 해석의 가능성을 약화시켜 단선적인 결과를 양산한다.

국문학 연구에서 ‘공동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1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¹⁵⁾ 고봉준은 레비나스-블랑쇼-낭시로 이어지는 철학적

12) 정태용, 앞의 논문. pp.264-273.

13) 손종호, 『개아의 열결성과 생명애의 사상』, 『한국 현대 시인 특성론』, 국학자료원, 2000, p.402.

14) 홍정선은 “이런 점에서 고독과 고요를 동경하는 시인으로 출발한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문단정치일선을 떠나 실존의 세계로 돌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축복이 되었다”고 했다. 홍정선, 앞의 논문, p.347.

15) 2005년 ‘상상의 공동체’를 주제로 한 한형구의 논문 이후 백석이나 신경림을 대상으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는 전통적 공동체의 개념을 일부 수용한 연구로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존재론적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논외로 하였다. 이후 2011년 상허학회에서 ‘공동체, 유토피아, 친밀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고봉준, 권혁웅, 소영현 등의 논문이 발표되어 ‘공동체’에 대한 문학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한형구, 『한국 근대 문학과 ‘민족’(民族)이라는 상상 공동체: 민족주의적 정열, 혹은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주동력』, 『한국근대문학연구』6권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 pp.202-236.

고봉준, 『근대문학과 공동체, 그 이후: ‘외부성의 공동체’를 위한 시론』, 『상허학보』33집, 상허학회, 2011, pp.31-67.

계보를 원용하여 ‘공유’를 중심으로 한 ‘내부성의 공동체’와 ‘특이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외부성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80년대까지의 문학이 내부성의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이해해 왔다면, 90년대 이후의 문학은 일시적 집단성으로 사유하는 외부성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했다.¹⁶⁾ 손민달은 마르크스의 공동체 구상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통적 공동체의 역사로 이후를 존재론적 공동체의 구상 시기로 구분하고, 1990년대 시가 개인주의화 되어간다는 기존 평가에 반하여 이 두 가지 공동체적 구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¹⁷⁾ 최도식은 격동기를 살아왔던 구상의 시를 대상으로 민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 무위의 공동체로 나누어 구상의 시와 삶의 궤적을 논증하였다.¹⁸⁾

본 연구는 김광섭의 시가 그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변모되어 왔다는 기존의 단선적인 시 해석을 보완하고자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초기시가 가진 관념성과 중기 이후 보여준 현실적 관심의 확장이 ‘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베네딕트 앤더슨(이하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와 레비나스의 ‘타자의 환대’ 그리고 전지구적 범위를 가지는 ‘생명공동체’를 그의 시적 변화에 대응시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김광섭의 시가 가진 의미를 보다 폭 넓게 해석하고 그의 시적 변모 양상을 인식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권혁웅, 『시와 공동체』, 같은 책, pp.11-30.

소영현, 『연대없는 공동체와 ‘개인적인 것’의 해방』, 같은 책, pp.137-168.

16) 고봉준, 앞의 논문, 같은 쪽.

17) 손민달, 『현대시에 나타난 ‘공동체’ 연구: 1990년대 시를 중심으로』, 『어문학』118집, 한국어문학회, pp.305-333.

18) 최도식, 『구상 시에 나타난 공동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6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pp.311-344.

II. 상상의 공동체 - 부정적 현실인식

베네딕트 앤더슨(이하 앤더슨)에 의해 명명된 ‘상상의 공동체’¹⁹⁾는 민족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는 주요한 용어다. 그에 의하면 ‘민족’은 원초적으로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다. 그는 종교 공동체나 왕조가 붕괴하면서 인종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국어 신문 및 소설 등 출판물의 대량 생산이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²⁰⁾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동시성’(simultaneity)이라는 개념이며 이 동시성의 핵심은 ‘언어’에 있다. 상상의 매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어’야말로 근대적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적 기제이며 이와 같은 시야에서 근대문학의 장치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근대적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심 기제로 작동하였다.²¹⁾

김광섭은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에서 “오늘 우리가 문학에 대한 통일된 동기는 문학인의 의식에서 기복되는 민족의식의 성장과 그 발전 강화 일 것임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일 것”²²⁾이라 하면서 ‘민족’에 대한 애착을 표명했다. 해방 이전에 출간된 그의 시집 『동경』(1938)은 이현구의 서사(序詞)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땅의 삼십 년대(三十年代) 인텔리의 지성

19) 한국에서 『상상의 공동체』는 1983년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나남, 1991)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1991년 개정증보판으로 『상상의 공동체』(나남, 2002)가 번역 출판되었다.

20) 고영훈,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사회비평』25, 나남출판사, 2000, pp.90-99.

21) 한형구, 「한국 근대 문학과 ‘민족’(民族)이라는 상상 공동체: 민족주의적 정열, 혹은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주동력」, 『한국근대문학연구』6권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 p.206.

22) 김광섭,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 앞의 책, p.568.

(知性)의 비극(悲劇)을 추출(抽出)한 우수(憂愁)의 기록(記錄)”²³⁾이라 할 수 있다. 또 김광섭은 이 시집의 발문(跋文)에서 “한 개(個)의 분위기(雰圍氣) 속에서 허덕인 자(者)의 사념(思念)과 직관(直觀)이 청춘(靑春)의 수기(手記)로도 변용(變容)되었고 때로는 올빼미의 표상(表象)으로도 되었고 때로는 태만(怠慢)의 언어(言語)까지도 되었다”고 고백했다. 우울한 관념성이나 낭만성으로 평가 받아온 이 초기 시집은 ‘나라’라는 시어로 제시되는 ‘민족’ 즉 ‘상상의 공동체’를 통해 일제 하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진달래가 지면 어린 나라가 무너집니다.
 살구꽃이 지면 사랑의 애기가 흘러갑니다.
 배꽃이 지면 하이얀 꿈이 사라집니다.
 아 꽃이 지면 빛과 향기(香氣)는 땅에 묻히느뇨.

꽃 진 다음날은 푸른 그늘이 물밀려 듭니다.
 파릿한 신록(新綠)이 가지 끝에서 하느적입니다.
 매암을 부르는 손이 한껏 더 맑아 보이니
 중년(中年)이 와서 꽃보다 더 탐내질 않습니다.

한나절 휘파람 불기에 알맞은 녹향(綠香)
 풀잎에 옛마음 새꿈이 다사로워서
 어릴 적 베인 손가락에 피가 흐릅니다.
 아 그리운 시절, 풀밭에서 꿈 채로 자느뇨.

- 「꽃 지고 그늘 지는 날」, 전문²⁴⁾

23) 이현구, 김광섭, 홍정선 편, 『이산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p.34.

24) 본 논문에 인용한 모든 작품은 김광섭, 홍정선 편, 『이산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에서 발췌하였다.

원 하늘의 광명(光明)이 서(西)쪽 산(山) 머리에 기울어져 타고 난 다음
구름에서 떨어진 그림자가 숲에서 밀려오는 때쯤 하면
나의 상(床) 우엔 한 송이 꽃이 빨간 입술을 움츠리고
염염(炎炎)히 한 나라를 태우는 정경(情景)이 드러납니다.

무한한 생(生)에의 의념(意念)이 백일(白日)을 지나온 한나절엘지라도
이제 여기 광명(光明)이 황미(黃迷)한 자리에 앉았으면
슬픈 말들이 모여드노니 이것은 향료(香料)를 구(求)하는 섬
밤은 밤마다 이렇게 저물어가나 봅니다.

- 「황혼(黃昏)」, 부분

그대의 마음이 상(傷)한 곳에
불안(不安)한 나라의 얘기가 있다
드디어 비애(悲哀)를 얻어 인생(人生)을 잃었다.
이제 전신(全身)을 다하여
피 묻은 한 잔 포도주(葡萄酒)를 마시고
시(詩)의 샘 속에 가라앉은 신경(神經) 우에
그대는 땅을 잊어버리고 별을 헤이려 하였거늘
인생(人生)이 또다시 아픔이 되고 종기가 되어
원(願)하고 원(願)하여 날개를 그리는 마음
그대 고민(苦悶)의 풍토(風土)를 얻어 생리(生理)의 균형(均衡)을 잃고
날개를 갈망(渴望)하여 무한(無限)을 탐식(貪食)하려느냐.

<...>

인생(人生) 사회(社會) 시대(時代)
여기가 지옥(地獄)이라면
신(神)은 하필 여기에 하나의 순라(巡邏)한 아이를 보내어
일찍 권태(倦怠)의 말을 배워

눈물의 대가(代價)를 얻지 못하게 하느뇨.

아 인생(人生)이 파열(破裂)되어
부정(否定)의 노래가 되다

- 「고민(苦悶)의 풍토지(風土誌)」, 부분

위의 시들은 김광섭의 시세계를 구분할 때 초기에 해당하는 그의 첫 시집 『동경』(1938)에 수록된 작품이다. 「꽃 지고 그늘 지는 날」은 그리운 어린 시절 풀밭에서의 꿈을 추억하는 작품이다. 이 시는 꽃이 지고 신록이 가지 끝에 매달리던 시절의 꿈과 중년이 된 자신의 처지가 중첩되면서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환상적 상상력을 매개한다. 여기서 1연은 ‘꽃’이 ‘지면’ 어떠한 부정적 상황이 나타난다는 동일한 구조를 반복한다. ‘진달래’와 ‘살구꽃’과 ‘배꽃’은 우리나라에서 봄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들의 이름이다. 이 꽃들이 지면 “어린 나라”, “사랑의 얘기”, “하이얀 꿈”은 없어지고 그 “빛과 향기”는 “땅에 묻히”고 만다. 주목할 것은 첫 행인 “진달래가 지면 어린 나라가 무너집니다”에서 “어린 나라”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김광섭은 이 꽃들이 ‘지는’ 상황에 ‘나라’를 대입시킨다. 김광섭의 눈에 조선은 ‘어린 나라’로 비춰진다.

「황혼」은 한낮의 치열한 삶을 지나 해가 지는 황혼의 광경을 슬프게 묘사하면서 이를 위해 “한송이 꽃”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있는 작품이다. 「꽃 지고 그늘 지는 날」의 ‘나라’가 ‘꽃’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존재라면 이 시의 ‘나라’는 광명이 기울어지는 상황에 뜨겁게 태워지는 존재다. 또한 앞의 시에서 ‘꽃’은 ‘어린 나라’를 지탱하는 존재로, 이 시에서 ‘꽃’은 광명이 기울어지는 상황을 이겨내는 힘으로 상징되고 있다. 김광섭은 ‘광명’이 기울어져서 타고 난 다음이라는 상징성 짙은 시구를 통해 현실에 있

는 ‘나라’가 태워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꽃’을 “삼가 애겨야”한다는 현실의 희망을 나타낸다. 이는 그의 시 「효(梟: 올빼)」에서 “영원히 파묻힌 나라”에 오직 “신의 부르는 소리를 홀로 기다리”는 존재가 된 ‘올빼미’와 유사하다.

「고민(苦悶)의 풍토지(風土誌)」에는 “불안한 나라의 얘기가”나온다. 이 불안한 나라의 원인은 ‘그대’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 때문이다. 먼저 그대는 마음을 상하였고, 땅을 잊어버렸으며 지(地)의 이(利)를 잃어 고민의 풍토를 얻게 되었다. 신은 이렇게 순라한 ‘아이’를 보내어 권태의 말을 배우게 했으며 결국 아이는 눈물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김광섭에게 모든 삶은 ‘고민’의 연속이며 이는 숙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난 현실은 이러한 고민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공간이고, 이 시에서와 같이 절대적 부정의 공간이다. 그의 시 「밤」에서 “밤이 사랑의 글이 되어/답장 및 귀뚜라미 울던 때/하염없는 말들이 장미(薔薇)같이 타서/나의 나라에 얘기 많은 재를 남기다”라고 할 때에도 ‘사랑의 글’이 결국 ‘재’로 남게 되는 상황을 재현한다.

자신이 속한 ‘나라’를 불안한 곳으로 인식하는 김광섭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무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는 『동경』 이후 1941년 그가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로 가는 상황을 형상화한 「이별(離別)의 노래-서대문형무소행」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그는 “나는야 간다/나의 사랑하는/나라를 잃어버리고/깊은 산 뒤편 속에/숨어서 우는/작은 새와도 같이/나는야 간다/푸른 하늘을/눈물로 적시며/아지 못하는/어둠 속으로/나는야 간다”고 표현한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작은 새’가 “숨어서 우는” 것은 사랑하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나는 ‘푸른 하늘’을 기쁘게 날았을 것이나 이제 그 하늘을 “눈물로 적시며” “어둠 속으로” 간다.

시집 『동경』에는 위와 같이 ‘나라’로 표상되는 ‘상상의 공동체’가 다수 나타난다. 이는 지금까지 시집 『동경』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을 타인으로 부터 고립시킨 채 현실의 고통을 내면화하여 혼자 현실을 벗어나 구원을 추구하려는 시적 자아의 태도를 보여준다²⁵⁾는 일반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앤더슨이 제시한 ‘상상의 공동체’로 보이는 그의 ‘나라’는 시적화자가 바라본 엄혹한 현실과 그 현실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가 동시성의 원리, 그 중에서도 언어를 통해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시인의 시 역시 그러한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상상의 공동체’가 주는 수평적 동료의식은 김광섭의 시에서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으로 표현된다.

Ⅲ. 존재론적 공동체 - 타자에 대한 책임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규명한 주요 인물로는 레비나스와 블랑쇼와 낭시를 꼽을 수 있다.²⁶⁾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실존이 근본적으로 타자지향적이라는 것, 타자와의 함께-있음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²⁷⁾, 『존재에서 존재자로』²⁸⁾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얼굴과의 만남에서 다가오는 타자와의 다른 만남을 새롭

25) 안혜경, 앞의 논문. p.58.

26) 이 세 명의 존재론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고봉준, 앞의 논문, pp.50-57과 손민달, 앞의 논문, pp.308-310을 참고.

27)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28) 엠마누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게 기술한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란 더 이상 나의 공감과 연민, 감정이 입의 대상이 되는 하이데거적인 상호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니고 나와는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타자다. “타인으로서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 그는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다.”²⁹⁾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중심은 자아의 타자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대속’이라 일컬어진다. ‘대속’은 자유로운 주체의 능동적, 자립적 활동을 말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대신해서, 타인의 자리에 내가 세움 받는 일”이다. 나는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타인의 자리에 서기 이전에 벌써 타자에 의해서 타자를 위해서 책임적 존재로 세움 받았다. 이는 내가 타인의 요구와 부름에 응답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심지어 타인의 책임을 대신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³⁰⁾ 나는 모든 타자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들의 책임까지도 책임지는 존재다. 그러므로 레비나스가 도달한 윤리학의 근본 토대는 바로 타자의 얼굴이다.

김광섭이 1949년 출판한 시집 『마음』의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의 시(詩)는 결국(結局) 조그마한 나 자신(自身)이요,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自身)을 생각한 느낌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나이기를 바랄 때 시(詩)는 보편(普遍)된 마음을 통(通)하는 길을 찾으며 우주(宇宙)에 대한 동감(同感)을 구(求)할 것이나, 나의 시(詩)는 운명(運命)을 잘못 타고난 자(者)의 일개(一個) 하소연에 지나지 않는다.”³¹⁾ 김광섭은 이 글에서 타인에 대한

29) 김영한,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논총』64집, 새한철학회, 2011, pp.119.

30) 강영안, 「책임으로서의 윤리: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81집, 한국철학회, 2004 겨울, p.75.

자신의 책임과 타인과 나와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고백한다.

고향(故鄉)에 돌아와서/뜰에서 집을 보고
집에서 방을 살피니/하나도 보잘것없는 집
고전(古典)도 없고 현대(現代)도 없는 집

나와 동생과 누이들끼리 얘기를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은/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그들은 이미 늙으셨고/나는 돌아다니며 슬피 컸다

우연(偶然)히 서로 눈길이 부딪치면
샘같이 솟아오르는/눈물을 지니고
나는 고요히 뜰에 나와서/홀로 산(山)으로 간다

내가 앉았던 옛 자리가 있으니
묘망(渺茫)한 바다에 수(數)없는 길
흰 돛은 하늘가에 사라지고
나는 꿈의 상자(箱子)를 찾아
옛바다에 투신(投身)한다

- 「고향(故鄉)」, 전문

어느 ‘원인(原因)’에서 오는/이 처량한 ‘결과(結果)’들이뇨
마른 가지에 봄을 기다리는/적은 감정(感情)들
이 한 등이에 모여서/헐벗은 새같이 지저귀니

저 하늘이 푸르건/저 구름이 어둡건
저 별들이 반짝이건/상(傷)함 많은 이 땅에서

31) 김광섭, 홍정선 편, 앞의 책, p.174.

자라는 적은 생명(生命)들

꺼진 등(燈)불 아래/꿈은 옛날 고운 옷
그대로 입고 있건만/이 눈물겨운 촛대 위에
불을 켜줄 사람은 누구뇨

- 「겨울밤-단전(斷電)의 어둠」, 전문

나는 붉은 태양(太陽)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저 높은 봉우리에 깃든 고독(孤獨)을 즐긴다

나는 그 봉우리에서 황야(荒野)에 달음친
산(山) 줄기의 역센 힘을 가슴에 받는다

나는 황토(黃土) 언덕 좁은 구비를 돌아
험한 고개로 올라간 길의 정열(情熱)을 사모(思慕)한다

나는 비인 듯 창창(蒼蒼)한 공간(空間) 넓은 별판
이름 모를 만생(萬生)의 충동(衝動) 속에 서서

몸을 바쳐 누구에게로 가까이
그 길을 걸어가는가 오 흙의 영혼(靈魂)이여

- 「오 흙의 영혼(靈魂)이여」, 전문

위 세 편의 시는 김광섭 시세계를 초·중·후기로 구분할 때 중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이 시기는 투옥과 해방, 이후 대통령 공보비서관과 경희대 교수로 있을 때에 쓴 시라고 할 수 있다. 김광섭이 보여준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성, 타자에 대한 책임은 첫시집 『동경』의 「나상(裸想)」에서부터 확인이 된다. 그는 “회전(回傳) 유전(流轉) 변전(變轉) 역전(逆轉)……/

나는 시간(時間)의 등이에서 낙하(落下)한다./현대(現代)는 한 추태(醜態)였다./나는 바다로 가는 한 방울 물이 되리라"고 한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아의 타자에 대한 환대와 책임을 이 짧은 소품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고향」은 고향을 떠나 “돌아다니며 슬피” 큰 ‘나’가 고향에 돌아온 상황을 그리고 있다. 고향의 집은 보잘것없는 집으로 ‘고전’적이 것도 없고 ‘현대’적인 것도 없는 일상적인 집이다.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의 얘기도 부모는 “이미 늙어” 말이 없다.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늙어버린 부모를 보는 나의 마음은 슬프다.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시는 제시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앞 3연의 내용으로 보아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상적 소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꿈의 상자”를 찾고자 하는 나의 바람은 과거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현대적이지도 고전적이지도 않은 집에서 늙은 부모님을 만난 나는 부모와 눈이 마주치면 눈물이 난다. 이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던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지 못한 시적화자의 슬픔이다. 시적화자의 슬픔은 화자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현실에서 이들은 나와 타인으로 분화되었지만 타자에 대한 자아의 책임은 이 시에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겨울밤-단전(斷電)의 어둠」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는 작품이다. 겨울밤 전기가 나간 방 안에 사람들은 “헐벗은 새같이 지저귀”고, 이들에게 이 땅은 상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늘 작고 약한 존재다. 이 작고 약한 생명들에게 환하게 밝혀줄 전기처럼 밝은 희망이 될 사람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시의 발표 시기가 1947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어두운 겨울밤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도 상처받고 있는 조선인들은 비극적인 현실에 대항해 싸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약한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시적화자는 ‘꿈’을 버리지 않았으며 그 꿈을 이를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반문한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단연 “불을 켜줄 사람”이다. 단순히 정전된 방안의 어둠 문제를 타개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적 현실에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할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 현실을 감안하여 일제에 대항할 무엇인가에 대한 바람이라 하더라도 이 시는 “적은 생명들”을 책임질 사람에 대한 기대로 해석된다. 즉 나와 타인을 포함한 공동체 내의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타자를 환대할 책임을 이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 흙의 영혼(靈魂)이여』는 『겨울밤-단전(斷電)의 어둠』과 같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시적화자인 나는 ‘고독’을 즐기고 ‘힘’을 가슴으로 받으며 ‘정열’을 사모하는 존재다. 그가 가진 이러한 힘과 에너지는 넓은 별판에 있는 ‘만생’에게 몸을 바쳐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제시하고 있는 이 시는 흙이 가진 생명 탄생의 힘과 희생을 그리고 있다. 다른 생명을 키워야하는 흙의 책임은 어쩌면 ‘어머니’의 역할과도 흡사하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 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만생을 키워야하는 ‘흙’의 책임은 일맥상통한다. 이 시에서 흙으로 비유된 자아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점에서 나아가 만생의 충동에 몸을 바치려 한다. 이러한 흙의 의지는 타자의 책임조차 자아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대속’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광섭은 그의 중기에 해당하는 시편들 이후에도 존재론적 공동체에 대한 의지를 여러 곳에서 표명한다. 특히 『거리(距離)』와 『저녁에』는 레비나스가 주장한 타자의 현전을 명확히 그려내고 있다. “거리란 없는 것이다./ 있다 해도 봄이면 풀려서 없어진다/가거나 오거나/거리는 기다림이다.”

(『거리(距離)』) 이 시는 벽과 꽃 사이에 얼음고개가 있지만 봄이 오면 “풀려서 없어”져 나와 타자 사이의 거리란 단순한 기다림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표현했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자아의 타자에 대한 환대를 말하는 다른 시편도 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저녁에』) 이 시 역시 별과 사람 중에서 무엇이 주체이고 무엇이 객체인지 모호하게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 그 자체를 중심에 두고 표현한 전형적인 존재론적 공동체의 시다.

김광섭은 초기시가 보여준 상상의 공동체가 가진 부정적 현실인식에서 나아가 중기시에는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성 자체에 주목하는 존재론적 공동체를 꿈꾸게 된다. 특히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현전, 자아의 타자에 대한 책임과 ‘대속’을 시의 중요한 표지로 삼아 시작활동을 한다. 이 시기 그는 『마음』(1949)과 『해바라기』(1957)를 출간하면서 문단, 정치, 교육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의 존재론적 공동체 구상은 초기시와 후기시에 걸쳐져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IV. 생명공동체 - 생명지향의 미래와 한계

1960년대 이후 정책적으로 시행된 도시화·공업화·산업화 정책은 경제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삶의 많은 조건들에 희생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행되는 수많은 개발과 파괴로 인한 생태·환경 문제는 당장의 이익에 의해 무참히 묵살되었다. 동양의 일원론적 사고에 익숙한 전근대적 삶의 방식에서 일제라는 모순된 근대

화의 과정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는 단순한 논리로 해명되지 않는다. 김광섭은 이 시기 자연과 인간의 일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고 이들의 유기체적 속성을 인정하는 생명공동체를 구상한다.

생명공동체의 파괴에 저항하는 다양한 논의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 중에서 ‘생명’의 개념과 윤리학적 가치를 통해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스 요나스(이하 요나스)와 장희익은 주요한 인물이다. 장희익의 ‘온생명’ 사상은 전지구적 생태 파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 이후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에 대항하는 한국적 생태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³²⁾ ‘온생명’이 기존의 생명 개념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구상에 나타난 전체 생명 현상을 하나하나의 개별적 생명체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전일적 실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별 생명체가 가진 국소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이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이들이 구현해내는 체계의 집합을 외연으로 하는 것이 ‘온생명’이다.³³⁾

요나스 역시 자기목적적 지닌 생명이란 결코 물질에 환원되거나 정신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하나에 환원할 수 없는 전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생명이 전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은 관계라는 것이며 관계성 속에서 생명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생명은 아무리 낮은 물질의 형태를 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을 담지하고 있으며 아무리 고상한 정신일지라도 물질에 속해 있는 것이다. 생명체는 언제나 내면성의 차원을 가지는 심리물리적 통합체이다.³⁴⁾ 요나스의 생태철

32) 이와 관련하여 김지하의 ‘생명사상’이나 함석헌의 ‘씨알사상’ 등도 본 논문의 논지와 유사하다.

33) 장희익, 『삶과 온생명』, 솔출판사, 1998, p.180.

학에서 주요한 지점은 그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생태윤리의 선두자라는 점이다. 그가 말한 책임의 대상은 자연의 전 생명을 포함하며 인간의 책임 윤리는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보존하고 생명을 지속시켜한다는 최고의 의무이며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사태³⁵⁾다. 인간에 의해 자행된 생태·환경의 파괴는 결국 인간의 책임과 윤리를 통해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광섭은 1965년 서울운동장에서 야구 구경을 하다가 뇌출혈로 졸도하여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이후 1969년 제4시집인 『성북동 비둘기』가 발간되는데 이 시집의 머리말에 “여기 실은 시는 ‘심부름 가는……’ 한 편 외에는 모두 병석에서 쓴 것이다. 자칫하면 못 나올 뻔했던 시집이요, 마지막 시집일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후에도 김광섭은 12년을 살면서 훌륭한 시작품을 많이 남겨놓았지만 당시 그가 느꼈을 심리적·정신적 공황은 매우 컸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의 후기시에 해당하는 『성북동 비둘기』를 포함한 이후의 시에는 그의 이러한 체험이 바탕이 된 ‘생명공동체’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다. 물론 그의 이러한 정보는 그 이전의 시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무한(無限)히 작은 한 개(個)의 벌레에 신비(神秘)의 우주(宇宙)가 있어……”(『태만(怠慢)의 언어(言語)』)라든가, “바다로 가는 길이 있으니/거기는 내 동무 갈매기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길』), “자연(自然)은 영원(永遠)하고 진실(眞實)한 것/만물(萬物)이 나서 돌아가는 집”(『집』) 등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34) 최소인, 『한스 요나스의 생명철학과 책임의 윤리: 생명공학 시대의 윤리적 요청에 대한 응답』, 『철학논총』43집, 새한철학회, 2006, pp.387-388.

35) 위의 논문, 같은 쪽.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남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성북동 비둘기」, 전문

번영이 버린 물/바다에 흘러 들어
고기 병신되어/벌레가 된 것을
어미가 물어다 먹인/새끼 제비가 죽은 것을 보고 놀라

갑자기 눈이 어두운 어미 제비도/전봇줄에 앉아 울다가
떨어져 죽었다/참새에게는 쌀을 주고
제비에겐 벌레를 준/하늘을 원망하여
바다는 고요했고/새는 곡했다
늦가을 강남 갈 제비도 없고
삼월 삼진날 강남서 올 제비도 없으니
놀부 흥부는 제비 잘사는 나라로
이민이나 가시지

- 「변영의 폐수」, 전문

구름은 봉우리에 등등 떠서/나무와 새와 벌레와 짐승들에게
비바람을 일러주고는/땀 봉우리에 갔다가도 다시 온다.

샘은 돌 밑에서 솟아서/돌을 씻으며
줄줄 흐르다가도/돌 밑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서 줄줄 흐른다.

이 이상의 말도 없고/이 이상의 사이도 없다.
만물은 모두 이런 정에서 산다.

- 「우정(友情)-산과 구름과 돌과 샘」, 전문

강(江) 건너 멀리에/별 한 집이 저녁에 이사해 오더니
이숙해서/헤일 수 없이 총총하더군요
그래 거기/우리 집에서 뵈히 보이는
별 마을이 됐어요/우리 이웃은 말이 없어도
거기는 항상 속삭이는/변함없는 이웃이래요

- 「별 마을[星村]」, 전문

위 네 편의 시는 『성북동 비둘기』가 출간된 1969년 이후의 작품이다. 김광섭 시세계를 구분할 때 후기시에 해당하는 위 시는 그가 추구한 생명공동체의 방향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성북동 비둘기』와 『번영의 폐수』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고 산업사회가 가져온 물질문명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성북동 비둘기』는 물질문명에 쫓기는 비둘기를 보며 자신이 처한 사회와 문명이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요소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소외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현대문명의 비정함과 비인간화, 소외의 문제를 깊이있게 제시³⁶⁾하였다. 신경림은 “우리가 이 시에서 느끼는 것은 이웃과의 완전한 일체감이다. <…>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이웃 또는 민족과의 일체감 속에 다시 조화를 얻어 격조높은 문명비평의 경지에까지 이르게”³⁷⁾했다고 평하였다. 개발을 통한 물질문명의 추구가 가져온 비정한 현실은 비단 비둘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과 상관없는 계층에게 개발은 단지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집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시가 보여준 인간의 소외문제는 그가 추구하는 생명공동체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는 ‘소외부터의 인간해방’³⁸⁾이다.

『번영의 폐수』는 무분별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이것이 유기체적 생태계의 순환에 따라 연속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했다. “번영에 버린 물”이 ‘고기’, ‘벌레’, ‘제비’ 등을 죽게했고 생태계의 순환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둘기와 벌레와 인간을 동일한 범주의 생명으로 인식

36) 손중호, 앞의 논문, p.129.

37) 신경림,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97년 가을호, p.161.

38) 박호성, 『공동체론-화해와 통합의 사회·정치적 기초』, 효형출판, 2009, p.92.

하고 있는 김광섭의 생명공동체 인식은 한편 인간이 파괴된 자연에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우정(友情)-산과 구름과 돌과 샘』과 『별 마을[星村]』은 앞에서 살펴본 두 편의 시와는 다른 양상에서 생명공동체를 구상한다. 『우정(友情)-산과 구름과 돌과 샘』은 ‘구름’과 ‘샘’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난 다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적 삶의 보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이 이상의 말도 사이도 없이 “만물은 모두 이런 정에서 산다”고 표현한다. 모든 만물이 타자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으로 생태계의 순환, 유기체적 생태 환경을 표현하고 이렇게 서로 ‘정(精)’을 나누며 사는 사회를 김광섭은 꿈꾼다. 『대(大)서울』에서 “서울은 사람과 물체가 우글거리는데/있는 것은 아니다//어제의 우리/오늘의 우리/내일의 우리//이 셋이 같이 사는/영혼과 육체의 이미지다”라고 할 때 역시 파괴를 통해 얻게 되는 거대한 발전과 발달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꿈꾼다. 『별 마을[星村]』은 멀리 반짝이는 별을 이웃이라 칭하고 “항상 속삭이는 변함없는” 존재로 형상화한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유기체적 인식에서 김광섭은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 대한 공존을 소망한다.

위의 시들은 김광섭의 후기시로 초기의 관념성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과 맞닿아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김광섭은 생태·환경과 물질문명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그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생명공동체의 개념을 기준으로 볼 때 김광섭의 후기시는 생명공동체라는 광범위한 공동체를 구상하며 ‘온생명’의 생태철학을 잘 구현했다. 그러나 요나스가 제기한 책임 윤리의 측면에서 그의 시는 일정 정도 한계를 노출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구축된 그의 후기시는 인간과 자연의 계급적 인식을 무화시키는 심층생태학의 지점에 걸쳐

있다. 그러나 파괴된 생태·환경에 대한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즉 인간의 생명 윤리, 책임 윤리적 측면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를 드러낸다.

김광섭의 후기시는 생명공동체적 인식을 다수 보여주면서 초기시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성북동 비둘기』에서 보여준 물질문명 비판과 인간의 소외의 문제가 『별 마을[星村]』로 이어지면서 온생명과 같은 전일적 생명의 인식에까지 닿게 된다. 이것은 초기시와 중기시가 민족이나 자아와 타자의 관계성에 치중한 것에서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온생명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요나스가 제시한 인간의 책임 윤리의 측면에서 보면 후기시 역시 일정부분 한계를 드러낸다. 즉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생명공동체를 비판적 혹은 긍정적으로 구상한다.

V. 결론

김광섭의 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후기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그의 시세계 전반의 변화를 삶의 궤적으로 대응시켜 해석하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광섭의 시에 나타난 ‘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그의 시적 변모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초기시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관념성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의 첫시집 『동경』에는 앤더슨이 제시한 ‘상상의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는 ‘민족’의 대응어인 ‘나라’가 다수 등장한다. 김광섭은 ‘나라’를 매개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긍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한다. 그의 초기시를 표면적인 관념성과 고독과 허무로 평가하는

것을 이로써 보완된다.

김광섭의 중기시에는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성 자체에 주목하는 존재론적 공동체를 보여준다. 특히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현전, 자아의 타자에 대한 ‘책임’과 ‘대속’을 시의 중요한 표지로 삼아 시작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그가 자아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존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성북동 비둘기』를 포함한 후기시는 생명공동체적 인식을 보이면서 자아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킨다. 특히 그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온생명’을 사회하고 유기체적이고 전일적인 생명공동체를 구상한다. 그러나 요나스가 제시한 책임 윤리의 측면에서 그의 시는 일정부분 한계를 보인다.

김광섭의 초기시의 관념성은 상상의 공동체를 통해 부정적 현실의 인식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으며, 중기시는 존재론적 공동체를 통해 자아에서 타자로의 책임과 ‘대속’을 보여주며 시적 인식이 확장되었다. 후기시는 전지구적 공동체인 생명공동체를 구상함으로써 생명지향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광섭 · 홍정선 편, 『이산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2. 논문 및 단행본

강영안, 「책임으로서의 윤리: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81집, 한국철학회, 2004. 겨울, pp.51-85.

고봉준, 「근대문학과 공동체, 그 이후: ‘외부성의 공동체’를 위한 시론」, 『상허학보』33집, 상허학회, 2011, pp.31-67.

고영훈,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사회비평』25, 나남출판사, 2000, pp.90-99.

권혁웅, 「시와 공동체」, 『상허학보』33집, 상허학회, 2011, pp.11~30.

김광섭 · 홍정선 편, 「문학의 현실성과 그 임무」, 『이산 김광섭 산문집』, 문학과지성사, 2005.

김윤식,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광섭론」,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74.

김재홍, 「이산 김광섭」,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김해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명성 연구: 김광섭 · 성찬경 · 김광규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현승,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69. 봄, pp.130-140.

박호성, 『공동체론-화해와 통합의 사회·정치적 기초』, 효형출판, 2009.

박호영, 「김광섭 초기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환상과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학회지』132, 한국어교육학회, 2010, pp.227-248.

소영현, 「연대 없는 공동체와 ‘개인적인 것’의 해방」, 『상허학보』33집, 상허학회, 2011, pp.137-168.

손민달, 「현대시에 나타난 ‘공동체 연구: 1990년대 시를 중심으로」, 『어문학』118집, 한국어문학회, pp.305-333.

손점현, 「에코페미니즘과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연구」, 『문예미학』10권, 문예시학사, 1999, pp.183-191.

손종호, 「김광섭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_____, 「개아의 연결성과 생명애의 사상」, 『한국 현대 시인 특성론』, 국학자료원, 2000, p.402.

- 송기한, 「김광섭 시의 자연과 그 근대적 의미 연구」, 『한중인문학연구』29집, 한중인문학회, 2010, pp.179-200.
- 송명희, 「김광섭 후기 시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와 생태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32호, 한국시학회, 2011, pp.61-86.
- 신경림, 「김광섭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97. 가을호, p.161.
- 안혜경, 「김광섭시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염무웅, 「김광섭소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 이현구, 김광섭, 홍정선 편, 『이산 김광섭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 장은영, 「김광섭 시에 나타난 생명중심적 시의식 연구」, 『고향논집』32집, 경희대, 2003, pp.51-72.
- 정은경, 「이산 김광섭 시 연구」, 『어문논집』39, 민족어문학회, 1999, pp.371-402.
- 장정렬, 「문명의 위기와 생태주의적 상상력: 김광섭, 최승호 시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24,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2000, pp.101-122.
- 장희익, 『삶과 온생명』, 솔출판사, 1998.
- 정태용, 「현대시인연구14: 김광섭론」, 『현대문학』, 현대문학, 1967, pp.264-273.
- 조태일, 「시인의 삶과 문학」,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977년 가을호, pp.234-247.
-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96호, 역사비평사, 2011, pp.169-201.
- 최도식, 「구상 시에 나타난 공동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6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pp.311-344.
- 최병두, 「도시 공동체 운동의 실태와 전망」, 『환경과 생명』24호, 환경과 생명, 2000, p.91.
- 최소인, 「한스 요나스의 생명철학과 책임의 윤리: 생명공학 시대의 윤리적 요청에 대한 응답」, 『철학논총』43집, 새한철학회, 2006, pp.387-388.
- 한형구, 「한국 근대 문학과 ‘민족’(民族)이라는 상상 공동체: 민족주의적 정열, 혹은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주동력」, 『한국근대문학연구』6권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 p.202-236.
- 홍정선, 「김광섭, 시인이란 기억 뒤의 문단건설자」, 『한국사 시민강좌』43집, 일조각, 2008.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차에 대한 성찰』, 나남, 2004.

-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_____,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Community in the Poems of Kim Gwang-seop

Son, Min-Dal

Previous studies mostly focused on the later poems of Kim Gwang-seop, which raises a problem of making the overall changes to his poetic world correspond only to his life trajectory.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changes to his perceptions of "community" in his poems, interpreting his poetic transformations in a solid manner and explaining about the issue of ideality that wa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with his early works.

Changes to his perceptions of "community" are centered around the "imaginary community" to perceive "nation," "ontological community" with a focus on relations between ego and others," and "life community" based on organic, whole thinking.

In his early poems, "nation," which is a corresponding word to "people" that can be defined as "imaginary community" proposed by Anderson, makes frequent appearances. Kim expressed his negative perceptions of reality represented by the ruling Japanese via "nation" and his strong yearning for hopes in it, which raises a need to reconsider the old practice of defining his early works as the poems of superficial ideality, solitude, and futility.

In his middle poems, he paid attention to relations between ego and others themselves, dreaming of ontological community. He especially engaged in creative poetic activities with the presence of the other and the "responsibility" and "atonement" of ego for others proposed by Levinas as his important covers of poems.

In his later works, Kim expanded the scope of his ego infinitely, showing his perceptions of life community. He, in particular, expressed "global life" including man and nature in poetic words and devised an organic, whole life

community. Some of his later poems, however, do have certain limitations, as well, when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man proposed by Jonas is presented as the standard.

Key Word : Kim Gwang-seop, community, imaginary community, people, ontology, Levinas, responsibility, life, global life

손민달

소속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smindal@chosun.ac.kr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
